

“한 장에 500만원?”...포켓몬카드고가 매물 ‘속속’



[포켓몬카드가 뭐길래]

〈하〉고가 거래 이면엔 ‘위험’

지역 중고장터 수십만~수백만원 매물

희귀도·등급 따라 판매가격 천차만별

재포장·바꿔치기 등 중고거래 피해 우려

청소년 무분별 소비·개인간 거래 주의

“500만원, 190만원, 160만원...”

최근 전남광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포켓몬카드의 판매 희망가격이다. 어린이들의 놀이·수집 문화로 여겨졌던 포켓몬카드가 고가의 중고 거래 대상으로까지 자리 잡으면서 재포장과 사기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실제 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켓몬카드’를 검색한 결과 전남광주 서구 마곡동에서

‘포켓몬 XY-P 프로모 피카츄’카드 한 장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또 다른 희귀카드는 19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며, 전문업체에서 상태와 진위를 평가받은 이른바 ‘그레이딩 카드’는 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드 여러 장이나 미개봉 박스 역시 3만원에서 5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이 제시됐다.

다만 이들 금액은 판매자가 책정한 희망가격으로 실제 해당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켓몬카드는 같은 캐릭터라도 희귀도와 발행 종류, 카드 상태, 전문업체의 등급 평가 여부 등에 따라 중고시장에서 제시되는 가격 차이가 크다. 희소성이 높은 일부 카드를 중심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를 노린 거래 피해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미 개봉한 카드팩이나 박스를 다시 포장해 미개봉 상품처럼 판매하는 이른바 ‘재포장’ 문제도 온라인 수집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지인으로 부터 선물받은 중고거래 일본판 포켓몬카드 8박

스를 개봉했지만 한 박스에 한 장 이상 들어있는 이른바 ‘히트’ 카드가 나오지 않은 사례가 알려졌다. 이후 카드숍 점주에게 문의한 결과 포장 상태와 카드팩에 남은 흔적 등을 토대로 재포장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카드 자체는 정품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역에서는 포켓몬카드를 미끼로 한 1천만원대 중고거래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나주경찰서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포켓몬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포켓몬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 11명으로부터 약 1천36만원을 받아 채권 회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켓몬카드의 주요 소비층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된 만큼 고가 제품 구매나 개인 간 거

래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요구된다.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중훈(30대)씨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카드 가격을 비교하거나 인터넷에서 얼마짜리인지 찾아보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단순히 카드를 모으는 취미를 넘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는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미개봉 제품은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지역에서 포켓몬카드를 판매하는 이모(40대)씨는 “일반 소비자가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인 간 거래 시 판매 이력과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에 올라온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같은 것은 아닌 만큼 어린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보다는 정해진 범위에서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보건의료노조 “빛고을의료재단 어용노조 수사하라”

“재단 자금 지원·노조 가입 종용 의혹”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엄정 처벌해야”

빛고을의료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노동조합이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됐다.

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이 3천만원을 지원해 특정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부서장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고소했으며, 노동청은 재단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의료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순한 노조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점을 밝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조속

히 마무리하고 노동조합 지배·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찬용 기자

재활용품 수집업체 가스통 폭발 60대 전신 화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합평의 한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 고철 절단 작업 중 가스통이 폭발해 60대 작업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합평군 학교면 죽정리의 한 재활용품수집업체에서 가스통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외부 작업자인 A(60대)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중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굴착기를 이용한 고철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A씨가 굴착기로 가스통을 집어 절단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장 한쪽에서는 정화소통 절단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스통 내부에 남아 있던 가스가 절단 과정에서 누출된 뒤 인근 절단 작업에서 발생한 불꽃에 옮겨붙어 폭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졸음운전하다 교각 ‘꽂’...5명 중·경상

충격으로 옆차선 택시와 충돌

도로에서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은 뒤 택시와 충돌해 5명이 다쳤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9분께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에서 A(60대·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왼쪽 교각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뱅거 나오면서 2차로를 달리던 B(40대)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50대)씨, 5살 여아 등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D(30대)씨도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연상 기자



A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유촌동 신축예정 종합사무소건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심현심

이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

금융, 정보, 생활 서비스를 한 번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은행!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하기 꼭!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폰
올바른 NEW HAVE 카드

기본예금과 이월이월 0% NH국민은행
·신용 4월/월 2% 적립 / 월 1% 적립
·국세공정 권리유지용 세심하게 관리
·농민 안전과 생활안정 지원
·농민을 위한 NH국민은행

농심·신협·지역
격정의 마음, 하나로 완성!
NH농심비즈니스보험

농심·신협·지역
격정의 마음, 하나로 완성!
·20~80세, 유망직종 간접 가입 가능
·100세까지 비정규직·해당직종 가입 가능
·정신건강 보험 제공
·첫날부터 보험 및 첫날부터 보험
가입자 1% 할인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리한
환전·해외송금을 알립니다

·환전!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해외송금!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농지대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영농 시설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춘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